

가정 예배 모범

- 2022_10_23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무엘하 20장 14~ 26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요압은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

요압은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 아벨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성벽 높이의 토성을 쌓아 아벨 성읍을 초토화하려 합니다. 신명기 20:10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성읍을 파괴하는 군사 작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요압과 같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영혼들을 희생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2) 요압으로부터 아벨 성읍을 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

성경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한 여인이 아벨 성읍을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다가온 위협 가운데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나아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요압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녀는 이 성읍을 몰살하려는 요압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가 맞는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여인은 요압에게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려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사건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아벨 성읍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나요?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문제에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